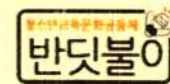


2017 청소년인권기획단 활동자료집

청소년차별인식개선프로젝트

미래는 몬살겠다

대구 청소년들의
청소년인권 이야기



2017 청소년인권기획단 활동자료집

청소년차별인식개선프로젝트 미래는 몬살겠다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2017 청소년인권기획단 활동자료집

청소년차별인식개선프로젝트

이래는 몬살겠다

대구 청소년들의
청소년인권 이야기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청소년차별인식개선프로젝트

이래는 몬살겠다

대구 청소년들의
청소년인권 이야기

이 자료집은 아름다운재단 2017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 아름다운재단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반딧불이는 청소년이 주체적인 삶을 살며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자신의 삶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3년 대구에 설립되었습니다. 청소년인권사업/청소년문화사업(역사탐방, 농촌체험, 캠프, 벽화, 청소년축제 등)/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청소년의 의견을 담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청소년의 목소리가 사회에 퍼질 수 있도록 활동 합니다.

청소년인권기획단

‘청.문.회’

청소년 세상의 문을 여는 모임(회)는 줄여서 청문회라고 부르며 반딧불이에 소속된 청소년인권모임입니다. 2013년부터 청소년인권기획단을 모집하여 인권캠페인, 인권축제, 인권아카데미, 인권교육, 인권토론회, 인권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인권을 시작으로 청소년의 참정권, 휴식권, 학교 내 의사반영 등 청소년의 삶이 보다 인권적일 수 있도록 청소년의 의견을 모아 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는말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는 2004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청소년단체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립초기부터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캠페인, 인권 옴부즈만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청소년인권 문제를 청소년 당사자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청소년인권기획단을 모집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획단과 활동 목표를 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을 조사하여 ‘십대의 10대요구’를 발표했으며 2014년에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각 지역 시장, 교육감을 모의로 투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시행되는 9시등교정책에 대해 대구시민들의 의견을 모았고 2015년에는 다양한 인권교육과 인권아카데미, 인권토크콘서트를 했습니다. 2016년에는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으며 학교 내 학생들의 의사반영 보장을 위해 ‘학교에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차별인식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청소년 삶의 변화를 위해 활동했습니다. 청소년이 겪는 인권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뒷담회와 뒷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요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에 외치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었으나 ‘다 너희를 위해 하는 말이니 지금은 학생답게 공부나 해’ 혹은 ‘일단 대학교가고 나서 하고 싶은 것 해’라는 말들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늘 외면당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많은 인권침해를 겪고 있으며 학교를 나오더라도 날 선 시선들이 청소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더 나아가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이 책에 담겨있습니다. 청소년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2017년 11월 25일

2017년 청소년인권기획단 일동

김나연 김민성 김보석 김지윤 김진환
도창목 박정인 박진성 석민상 여동엽
이다은 이수연 이예원 이채영 임효진
정택준 정혜린 조정인 최진욱 허지원
(가나다순)

| 목차

1. 청소년인권기획단 모임의 시작
인권기획단은 왜 모였나? _1p
2. 첫 번째 기획프로그램
우리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뒷담회' I
청소년 '인권'을 이야기하다 _4p
3. 두 번째 기획프로그램
우리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뒷담회' II
청소년 '인권침해' 해결방법은? _12p
4. 세 번째 기획프로그램
참여형 인권캠페인 청소년인권광장 S.A.M
Saturday Afternoon Meeting _24p
5. 네 번째 기획프로그램
우리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뒷담회' III
청소년 성소수자를 말하다 _28p

6. 다섯 번째 기획프로그램
우리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뒷담회' IV
짧은 방학, 긴 보충. 청소년의 휴식권 _36p
7. 여섯 번째 기획프로그램
우리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뒷담회' V
대구 교육감 정책평가 _47p
8. 일곱 번째 기획프로그램
우리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뒷담회' VI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만들기 _61p
9. 마지막 기획프로그램
참여형 인권캠페인 청소년인권광장 S.A.M
Saturday Afternoon Meeting _67p
10.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금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 _73p

부록

대구교육감 정책평가 세부내용 _77p

1. 청소년인권기획단 모임의 시작

| 인권기획단은 왜 모였나?

반딧불이는 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청소년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청소년인권기획단을 모집하여 다양한 인권활동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협력사업'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조사와 학교 내 의사반영을 위한 의견전달프로젝트를 청소년인권기획단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 열심히 학교와 교육청을 포함한 사회에 문을 두드렸지만 냉담한 반응만 돌아옵니다. 여전히 청소년들은 미래를 위한 존재로 인식되며 현재를 내려두고 공부만 해야 하는 존재, 뭘 모르는 미성숙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활동한 인권기획단 중 일부가 반딧불이에 모여 함께 머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질문을 서로에게 던졌습니다. "어떤 인권활동을 해야 할까?", "어떤 목표를 잡아야 할까?", "작년 활동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지?". 여러 의견이 오고가며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권기획단 모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소년 인권침해를 해결하는 것!' 기존에 해오던 인권캠페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반복되는 캠페인에 지치고 흥미도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를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동기가 필요한데 캠페인을 통해 잠깐 만나는 청소년들에게 그것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청소년이라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자고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임 이야기를 다시 캠페인을 통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알리는 인권캠페

인을 하고 하반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주제별 이야기와 대구교육감 정책평가
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하
기로 결정하고 첫모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7년 청소년인권기획단

☀ 활동 목표

1. 청소년 인권침해와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2. 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개선하자.
- (모든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다거나 학생은 공부만 해야 한다 등)

☀ 활동 계획

- 3월 청소년인권기획단 모집
- 4월 이야기 모임
- 5월 이야기 모임
- 6월 인권캠페인 / 이야기 모임
- 7월 이야기 모임
- 8월 이야기 모임
- 9월 이야기 모임
- 10월 인권캠페인 / 마무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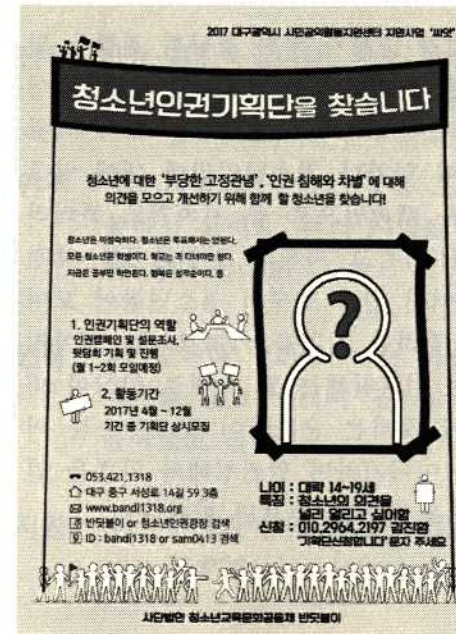
회의를 위해 다시 만난 인권기획단은 '이야기 모임'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모임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여러 후보 중에 모두 공감한 이름은 바로 '뒷담
회'. 뒷담을 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앞에서 당당히 말하기 힘
든 청소년의 사회적 입장을 고려했을 때 우리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는
의미를 살려 '뒷담회'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
눌 예정이니 '우리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뒷담회'로 최종 이름을 정하
고 포스터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함께 포스터를 만들고 우편작업까지 마친
인권기획단은 새로운 인권기획단이 얼마나 생길지 기대하며 첫 번째 프
젝트인 '우리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뒷담회'를 준비했습니다.



_인권기획단 회의



_홍보를 위한 우편물 작업 중



_인권기획단 모집 홍보포스터

2. 첫 번째 기획프로그램

우리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뒷담회’ I 청소년 ‘인권’을 이야기하다

청소년인권기획단의 첫 번째 기획프로그램 뒷담회는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기획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모임일시 : 2017년 4월 29일(토) 오후 2시

모임장소 : 반딧불이 강당

*참가자 일부는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 두근두근 첫 번째 뒷담회의 시작

다운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뒷담회 진행을 맡은 이다운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며 인권기획단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기존에 반딧불이에서 인권캠페인을 많이 해왔어요. 캠페인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청소년인권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힘들고 반복되는 캠페인으로 좀 지치기도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소수의 청소년들이 모여 일상에서 겪는 인권침해에 대해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상 속에 넘쳐나는 인권침해는 말 그대로 일상이 되어버려 부당하다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죠? 오늘 이 자리가 각자 일상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인권침해와 차별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 몸으로 느끼는 인권약속정하기

다운 뒷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꼭 지켰으면 하는 약속이 있어요. 먼저 서로 존댓말을 해요. 나이는 밝히지 않고 이름만 이야기하거나 불리고 싶은 별명이 있다면 별명을 말해도 좋아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말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나이가 적은사람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려고 해요. 사진 찍히는 것이 싫은 분은 미리 말씀해주시고 다들 동의하면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들은 더 많은 청소년들과 비청소년들이 내용을 공감하고 청소년인권문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SNS나 이후 자료집에 포함시켰으면 해요. 다들 동의하셨으니 참가자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저는 박정인입니다. 지금 몹시 피곤한 상태입니다. 끝입니다.

택준 정택준입니다. 자퇴생이고 미용사 준비중입니다.

진욱 저는 최진욱입니다. 현직 학생이고 열심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살면서 마음에 안드는 걸 말 하고 싶어요.

연주 지금 시험기간인데 공부를 포기했더니 엄마가 아침에 여기 가보라고 끌라서 왔어요.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고 재밌게 놀다 가고 싶어요.

민상 반가습니다 여러분. 나는 석민상입니다. 날씨가 참 좋군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내가 경험 안 해본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지원 나는 허지원이라고 하고 이름이 뒷담회이니만큼 남 시선을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이야기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원 나는 이예원이고 나도 자퇴생이에요. 체고를 다니다 자퇴했어요.

가영 나는 가영이고 내가 지금 청소년이 아니니까 청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다음 저는 이다음입니다. 오늘 토크회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쉽게 털어 놓을 수 있도록 진행을 맡게 되었고 나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기회를 만들게 되었어요. 서로 좀 친해지면 좋겠다 싶어서 빙고판을 좀 만들어 봤어요. 빙고판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두발단속 걸려본 사람, 성적으로 차별받아 본 사람 등 일상에서 겪는 인권침해 사례들이 있어요. 다들 처음 봤으니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서로 인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빙고판에 있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질문에 해당되면 그 사람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빙고게임이 끝나고) 자유롭게 빙고판에 있는 질문이나 일상에서 겪은 불편함들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봐요.

| 없는 듯 없어지지 않는 체벌, 어디까지 맞아봤나?

연주 난 중학교 때부터 맞아본 적은 없어요, 때리면 바로 신고하니까 그런가. 선생님들이 당구 큐대를 짚아서 친구들 많이 맞았어요. 아! 초등학교 때 실로폰 대로 머리 옆에를 막 맞은 적도 있어요. 학교를 그만뒀다가 지금은 다시 00고 다니는데 학교에 럭비부가 있는데 럭비부 같은 반친구 이름 불렀다고 이름 불린 친구를 선배들이 담배로 지지고 때리고 막 그랬어요.

예원 나는 체고라서 선생님한테 진짜 많이 맞았어요. 중학교 때까지 수영을 했는데 수영을 잘 못한다고 물고문도 당하고, 오리발이나 쇠파이프 같은 걸로 맞고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막 머리 강제로 집어넣고 그랬죠. 학교 소속 코치선생님이 많이 그랬어요. 내 친구는 초시계로 맞아서 머리에 피도 났어요. 오리발도 세워서 막 때리고 다

그렇게 운동한다면서...

진욱 학교에서 검도를 했었는데 운동장 뽕뽕이 시키고 죽도록 맞았었죠.

가영 나는 학원에서도 많이 맞았어요. 굴욕적인 거는 책상위에 무릎 꿇려서 허벅지, 발바닥 맞은거. 발바닥 때리던 쌤들도 혈액순환에 좋다면서 막 그랬어요. 수치스러웠던 거는 팔 위 안쪽에 꼬집는게 진짜 그랬어요. 자를 세워서 손가락 윗부분을 막 때리고, 그때는 신고는 안하고 뒤에서 욕만 했죠.

다음 난 내가 제일 어이없게 혼났던게 우리 반에 꽃을 하나씩 키우는데 식용꽃을 가져왔고 꽃이 피었는데 한 애가 그걸 먹더니 석류 맛이 난다 그래서 나도 하나 먹어보니 석류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쌤이 들어와서 갑자기 꽃이 다 어디 갔냐고 화내더니 학생들을 다 불렀어요. 어떻게 꽃을 먹을 수 있냐고 하길래 상황이 웃겨서 나도 갑자기 웃음이 좀 나왔는데 쌤이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 교무실에 무릎 꿇고 있으라 했었어요.

| 초등학생은 되는 염색, 왜 중학생 때부터 안되는거지?

다음 학교 다니면서 염색한 사람 몇 명이에요? 다섯명 정도?

연주 난 자연갈색이라고 많이 그랬어요. 우리학교는 염색화장 단속이 심하지 않고 핸드폰도 자율이거든요.

지원 난 원래 좀 머리색이 밝았는데 집에 자연갈색 확인증을 받아오라 해서 그걸 받아서 그냥 다녔어요.

다음 왜 초등학생 때는 되는 염색이 중학생 때부터는 안되는 거죠? 초등학생이 나이도 더 어린데.

| 길면 길다고, 짧으면 짧다고. 늘 단속되는 교복

연주 근데 왜 교복을 줄이면 안되는거죠? 3년 밖에 안다니는데 다니는 동안 이쁘게 입고 다니고 싶은데.

가영 옛날엔 치마를 길게 하는게 유행이었는데 그때도 단속을 했거든요. 짧은 길든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 말고는 늘 다 잡는게 이상한 것 같아요.

다운 학교 급식도 고등학생은 점심은 무조건 선택해서 먹어야 하는데 선택권이 없는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맛이 없거나 입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가영 학교에 오래있을수록 규정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기숙사도 마찬가지고. 오래있을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우리는 자퇴를 고민한다

정인 자퇴를 한 적 있는 사람들의 고민과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연주 난 자퇴하고 싶다고 하니깐 어머니가 울더라고요. 자퇴를 스무번씩 생각하니깐 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아빠는 안된다하고 엄마는 막 울고. 그래도 자퇴를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학교를 갔어요. 그렇지만 학교 다니면서도 하루에도 자퇴를 스무번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자기 전에도, 아침에 눈떠서도, 선생님이 뭐라 할 때에도, 친구들이랑 연락할 때도 자퇴가 생각나요.

예원 나는 지금 학교를 그만둔 상태인데 원래 물에서 하는 운동을 하다가 육상운동을 하게 되서 다쳤어요. 그런데 병원을 안보내주는 거예요. 체고는 특히 차별이 좀 심한데 부상을 당해서 다른 일반학교에 전학해도 체고생 이라고 잘 안 받아 주는게 있어요. 학교 다 전학해

봤는데 다 자리가 없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 점심을 먹고 도망을 나왔어요. 운동하기 전에도 자퇴하고 싶고 그렇게 한 달 넘게 고민하다가 자퇴를 했어요. 다치면 병원을 안보내주고 운동만 계속 시키거든요.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인문계친구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예체능하고 싶다는 말을 한번 씩 하는데 직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체고 애들이 다 운동만해서 그걸 안하면 진짜 할 게 없어서 엄청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것 할 게 없으니까. 대한민국에 운동하는 애들이 운동 말고 할 게 없어요. 운동부 애들은 교실에서도 선생님이 뭐라 하지도 않아요. 수업도 아예 못 듣고.

| 끊임없이 분류되는 청소년, 그 속에 사라지고 있는 '나'

민상 일반계, 체고, 실업계 각각의 명칭이 청소년의 삶을 많이 좌지우지하는 거 같아요.

다운 정말 다양한 이유로 분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는 길에 따라 계속 분류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나이, 학교 등. 내가 아니라 분류된 나로 살아 간달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건 갈 길이 정해지지 않은 애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 같고 예체능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그걸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불링부 하는 애가 있는데 시험 칠 때 OMR카드에 일자로 답을 적고 나가면 쌤이 "니 불링부가?" 물어보고 그냥 보내는 거죠. 내가 일반계를 다니며 자퇴하고 싶었던 순간은 학교 분위기가 너무 공부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등급, 성적,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커서 자퇴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는 대학을 얼마나 보내는지 기업처럼 승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사육시키는 기분이 많이 드는 거죠.

| 첫 뒷담회, 한줄 소감

다운 오늘 나온 이야기들 중에 인상 깊었다거나 바뀌었음 하는게 있으면 마무리로 이야기 해봐요.

진욱 나 같은 경우에는 예원이 한 말들이 공감되었고 후배라서 일하고 선배라서 쉬는 부당함에 대해서도 인상 깊었어요. 이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상 정규교육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나와서 다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를 일반적이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스로 그런 생각을 안하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많이 들어서 좋았고 앞으로 더 많이 듣고 싶어요.

다운 나이로 나뉘었을 때 청소년이라고 한 덩어리 묶어 내는 것부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분류 안에서 차별을 받고 분류 안에서 또 분류가 생겨 서로 차별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릴 청소년이라고 보기 전에 '나'라는 존재로 먼저 바라보고 생각 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영 다운의 말에 공감해요.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건 나의 고유한 특성일수도 있잖아요. 내가 나의 특성을 이야기 하는건 괜찮은데 그걸 다른 사람이 구분지어서 말하는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것과 20대라는 특성을 외면하고 싶지는 않아요. 각자가 자신의 특성을 말하는데 그럼에도 서로를 구분 짓지 않고 차별 안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원 학교를 나오니까 이야기할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먼가 내 얘기를 한다는게, 내 의견을 낸다는게 좋았어요. 원래는 내 얘기를 잘 못했는데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지면 할 수 있으니까 좋았어요.

택준 나는 좋았습니다.

연주 학교 다니면서 시내 나올 기회도 많이 없고 학교 애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좋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은 기회인거 같아 좋습니다.

지원 예원이 얘기한거 중에 공부안하고 예체능이나 할 걸이라는 생각을 나도 한 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서 좋았어요.

정인 나랑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_첫 번째 뒷담회 현장



_뒷담회 내용을 피켓에 담아 시내에서 피켓팅 하는 모습

3. 두 번째 기획프로그램

우리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뒷담회' II 청소년 '인권침해' 해결방법은?

두 번째 뒷담회는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참가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모임일시 : 2017년 5월 28일(일) 오후 2시
모임장소 : 반딧불이 강당
*참가자 일부는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 새로운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뒷담회

민상 안녕하세요. 두 번째 뒷담회 진행을 맡은 석민상입니다. 오늘 뒷담회도 첫 번째 뒷담회 처럼 함께 꼭 지켰으면 하는 약속이 있어요. 먼저 서로 존댓말하기, 나이는 원하는 경우에만 알리고 이름이나 불리고 싶은 별명 말하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말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려고 해요. 사진 찍히는 것이 싫은 분은 미리 말씀해주세요. 그럼 참가자 소개를 들어볼까요?

진환 저는 오늘 기록을 맡은 김진환입니다.

보석 예고를 다니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구요. 이름은 김보석입니다.

진성 박진성입니다.

대동 컴퓨터 보안이나 해킹, 사진, 영상편집을 주로 하는 대동입니다.

민성 중학교 3학년이고 미술, 영상에 관심 있는 김민성입니다.

창목 같은 학교 3학년이고 운동에 관심 있는 도창목입니다.

나연 예체능 하는 김나연입니다. 미술을 좋아해요.

지원 반딧불이에서 활동하는 허지원입니다.

진욱 반딧불이에서 인권기획단 활동하는 최진욱입니다.

혜린 같이 시간 있어 온 정혜린 이에요.

| 국가인권위 진정, 교육감 핫라인 정말 효과적인가?

민상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안내 할 게 있어요. 우리끼리 이야기만 나눈다고 우리가 겪는 인권침해가 실제로 많이 나아지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이라서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알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니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교육감 핫라인. 대구시 교육감이 만든건데 본인 인증만하면 로그인이 되고 내용을 작성하면 교육감한테 바로 가는거죠. 내가 겪은 차별을 교육감 핫라인으로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비밀은 보장되겠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인권위는 준정부기관 같은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예요. 전화접수나 인권위 방문, 홈페이지에서 진정을 할 수 있어요. 인권침해나 차별 관련해서 학교나 관련기관에서 일어난 일을 진정할 수 있어요. 나누어준 진정서 서식파일을 보면 직접 작성해도 되고 홈페이지에서 작성해서 보내도 되거든요.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이 있어요. 반딧불이

가 진정인이 될 수 있어요. 피해자 본인이 안 넣더라도 반딧불이가 단체로 대신 넣을 수도 있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할 수도 있는 거고. 피진정인은 학교나 학교선생님이나 차별을 준 옆집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뒷담회에서 자유롭게 이야기 해볼 건데 진정서에 들어갈 내용을 고려해서 이야기해보면 좋겠어요. 어떤 차별을 당한건지 적으면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 나온 것들 중에서 진정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상세절차도 나눠준 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접수하면 인권위가 사건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되어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권고, 기각, 각하가 될 수 있어요. 기각, 각하는 인용이 안된 거고 권고는 인용이 되어 해당기관이나 사람들에게 강제적이지 않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절차와 진행과정은 진정인이 확인할 수 있어요.

대동 이미 진정서를 넣어봤고 막상 넣으면 익명보장은 실제 안되고 다 찾아 내더라고요. 교육청 핫라인도 결국 학교에서 다 조사하면 익명성 보장은 안되요. 학교도 좀 문제인게 이렇게 민원 들어가도 학교에 강제력이 없으니까 답변만 하면 끝이에요. 학교에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 장학사한테 전화오고 학교에 막 불이 들어오던데 실제 개선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영향력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장학사들이 내용도 모르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창목 애들 불러서 한교시 동안 이야기하고 마치고 또 전화오고.

지원 무슨 내용으로 넣었어요?

대동 첫방은 교육감비리. 학교 안전문제나 도로관련 애들 위험한 부분.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장치 고장, 우레탄, 자유학기제 그런... 학교 내 벌금제관련해서도. 내가 보낸 양식을 학교에 그대로 보낸 것 같아요. 교감쌤이 장학사에게 혼나고 교감쌤이 3학년 부장쌤 뭐라하고 내리 갈굼이죠. 비밀은 개뿔. 하나도 안되요. 이름 없이 내려와도 내용을 보면 누가 했는지 다 아는거죠.

창목 교육감 선거범위만이랑 교육정책이 우리가 봤을 땐 아닌데 확인된 것들을 넣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진욱 작년에 내 친구가 학교에서 체벌을 당했는데 체벌을 넘어선 폭력수준이라 민원을 넣었더니 바로 당일 연락 와서 당사자 불러내고 민원을 취하하라고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동 취하가 안 되면 학교가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답변이 안 되면 학교가 계속 신경을 써야하니까. 나도 학교가 취하하게 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체벌이 여러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데 휴대폰, 두발 모두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 학교는 왜 숨기려고만 하나요?

예린 나는 학교 소리함에 의견을 넣은 적은 있어요. 수업하던 도중에 선생님이 여학생 반에서 옛날에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 하다가 “백년 전이면 위안부 었을거다”라고 말해서 그 반에 있던 학생과 타반 학생이 편지를 써서 소리함에 넣었어요. 생각했던 것 보다 시시하게 그 말한 선생님이 반에 가서 옛날 이었으면 힘들었을 거라고 말했다면서 사과 아닌 사과를 했어요.

대동 소리함이 학교에 있지만 진짜 확인을 잘 안해요. 소리함에 의견을 넣어 봤지만 아무런 소식도 이야기도 없었어요.

보석 내 친구가 학교폭력을 좀 많이 겪었는데 학교는 다 덮으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직접 못 보니까 니가 잘 타일러 주라고만 하고 나는 같은 과가 아니라 그게 안 되는데. 학교 재단이 크니까 덮으려고만 해요.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자살을 했는데 그것도 덮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있던 일로 자살을 했거든요. 그 쌤이 담임은 아니고 정보실에 있으면서 학교 고장난 컴퓨터 고쳐주셨고 애들에게 잘해주고 좋은 쌤이 었는데 학교에서 대우가

안 좋았다고 학생들은 생각해요. 학교에서 교사가 자살하는 일이 없는데 우리 과 건물에서 애들이 있을 때 자살을 했거든요. 그걸 학생들이 보고 치료도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떤 뉴스도 없고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없고 그 때 봤던 당사자들만 심리치료하고 그게 다예요. 학교 운동장에 장례식장 차가 들어왔다가 가는 것도 없었고. 조일공고도 학교에서 학생이 자살했는데 그걸 덮으려고 임시휴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동 학교가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고 쌤들이 힘들어지고 미치는 영향력이 크니까 학교에서 덮는 것 같아요. 정보 쌤이 대부분 학교에서 전문 인력을 데려오기 힘들니까 기존에 쌤들이 중복으로 일을 해야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컴퓨터 업무가 한사람에게 쏠리니까 자살해도...

| 여학생이 학교에서 겪는 일

예린 교복으로 여학생이 바지를 입는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 고등학교는 여학생은 치마, 남학생은 바지를 입잖아요. 하복치마가 딱 붙는 H라인이라서 앉을 때 짹 달라붙고 불편해서 여자교복을 바지로 해달라고 몇 번 이야기해봤는데 답변도 없이 교칙대로 하라고 말만 하더라고요. 여학생은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게 좀 별로예요.

대동 교칙을 바꿀 때는 두 명이 같이 움직여야 하더라고요. 학생회가 있어야 하고 학부모위원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 함께 넣으면 통과되는데 혼자 움직이는 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학교는 반의 화합을 위해 체육대회 때 반끼리 모여서 1분 이내로 노래 정하고 춤추고 각 반이 점수를 주는 게 있어요. 이걸 할지말지 설문조사를 200여명 했는데 결과가 다들 싫다고 이야기 나왔는데도 니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참가하는 팀은 추가점을 주니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결국 선생님들한테 끼부리는 것도 아니고 반마다 춤추면서 잠깐씩 지나가고 그

렸죠.

예린 우리학교는 여학생 신입생이 많아서 한반을 늘렸어요. 급식소 공간을 딱 절반만 나누어서 남녀 나뉘어 밥을 먹는데 여학생이 수가 많고 급식 먹을 때 남학생이 더 빨리 먹고 나가니까 급식공간을 좀 더 주면 안 되냐니까 남학생이 불쌍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나연 성차별도 심해요. 과학 쌤이 여자는 근육 나오면 보기 흉하다고 하고 여학생은 무조건 체력이 적다는 걸 전제로 깔고 행동해요.

예린 한번 씩 어깨를 주물러주는 남자 쌤이 있는데 여학생만 그러는 거예요. 어깨가 굳어있는 학생들은 어깨가 굳었네라하고 부드러우면 말랑말랑하네 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선생님이 해준다고 하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러고. 정말 기분이 나쁜데 기분 나쁘다 하면 싸가지 없다고 해요. 개인 물병을 책상에 올려 두면 그냥 가져가서 입대고 마시기도 해요. 진짜 기분 나빠요.

| 학생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 사랑, 자유 그리고 휴지

민성 학생 화장실에는 휴지도 없는데 선생님 화장실은 휴지도 있고 따뜻한 물도 나와요. 몰래 쓰다 걸리면 벌점 받아요.

예린 휴지를 2주마다 교환해주는데 한주만 지나면 다 떨어지거든요. 늘 모자라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 연애를 하면 불려서 둘 성적비교를 하기도 하고 벌점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창목 학교마치고 쌤들이 뒷담화를 해요 누가 사귀고 어떻게 되가고 있고.

대동 쌤이 매주 불려서 헤어진 여부를 물어보고, 그 쌤 덕분에 연애사실이 공개되고 곧 헤어질 거라고 막 말하기도 해요. 교무실 들어가면서 누가 누구랑 사귀었다고 막 그러고, 사귀던 커플이 헤어지고 딴사

람을 만나면 누가 더 좋다는 내용으로 막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교무실에 소문 다 나고.

보석 중학생 때는 남녀 분반 이었는데 남자 반을 못 갔어요. 체육복 빌리러 가면 쌤들이 막 때리고, 누구누구 사귀는지 설문조사도 하고.

나연 학교에서 백일장할 때 주제가 '성평등'이라고 하길래 교장실에 가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자기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쌤한테 찾아가서 말했는데 알겠다고는 안하고 니가 예민하다는 말과 칭찬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혜린 야자는 야간 '자율'학습 이니까 공부 하는 게 자율이어야 하는데 자습하다가 핸드폰 만지다 걸리면 20일간 빼앗겨요. 자율학습시간인데 잠깐 쉬면서 핸드폰을 만질 수도 있지 쉬는 시간을 스스로 정하지도 못하니까 답답해요.

| (상)별점제도 대안은 없는가?

보석 저희학교는 상별점제도가 없는데 특별교실(이하 특교)라는 제도가 생겨서 지각이나 잘못하면 특교에 보내요. 노란딱지 받고 특교 가서 선생님이 마쳐주는 시간까지 모눈종이에 반성문을 한 장 채워야 해요. 글씨가 크거나 칸에서 벗어나면 한 장을 더 써야 해요. 선생님이 마치는 시간 안에 덜 쓰면 다음날 또 해야 되요. 폰을 내고 강제로 간헐야 하거든요.

혜린 별점 많은 학생들 방송으로 공개적으로 부르는데 이유는 말 안해도 부르는 사람들 이름을 들어보면 다 알죠.

민상 이유를 말 안하고 이름만 말하더라도 다 알만하니까 인권침해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동 편의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민상 그럼에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나은 방안을 고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동 1학년 때 별점을 상점으로 없앨 수 있는데 별과 상을 합친 다는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별점은 많이 주는데 상점은 잘 안주기도 하고 상점이 그냥 별점을 상쇠 하는 용도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혜린 내 친구가 별점이 많아서 쌤한테 불러갔는데 교감쌤 컵 닦아라, 책상 닦아라 이런 일을 시켰대요.

나연 매달 급식당번 중 돌아가면서 쌤 급식을 받아주기도 해요. 우리는 급식을 반에서 하는데 바쁜 일 있다고 받아달라고 하니 받아주는 하는데 역으로 우리가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쌤에게 받아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대동 급식애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학교는 비닐, 종이, 벌레도 나오고 머리카락은 필수고 쌤들은 배식하는 애들한테서 나온다고만 말해요. 그냥 너희 반 잘 챙겨주겠다고 말하고 영양사 쌤보다 조리하는 과정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분들도 의도로 한건 아닐 텐데 얘기하려니 음식 해주시는 분들께 죄송해서 말 못하기도 해요.

| 선생님이 의사인가요? 어떻게 아픔을 증명하나요?

동염 학교 운동장 우레탄 공사도 공사를 할 거면 빨리하고 안하면 쓰게 해주지 그냥 그대로 방치만하고 있어요.

혜린 미세먼지가 높으면 강당에 보내거나 반에서 자습하거나 그러는데 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대동 미세먼지 때문에 자습하는데 반에 뽀이 들어오더니 창문 다 열게 만든 적도 있어요.

혜린 아픈데 자습 안 빼주는 것도 진짜 그래요. 내가 아픈 걸 증명해야 하니까.

민상 아픔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도 참.

대동 아프다고 말하면 그걸 뽀들이 판단하는데 뽀들이 의사도 아니고 아픈걸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야.

혜린 아픈 학생은 보건실에서 쉬기도 하는데 생기부 때문에 무조건 2시간만 쉬고 그다음은 거기서 나가야해요. 보건실에서 쉬는 시간이 많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 우리학교는 참 좋은 (입시경쟁)학교입니다.

대동 고등학교 진학도 학생마다 성적이 다 다르고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뽀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컴퓨터를 잘해봤자 현실적으로 성적이 돼야 하니까 그런가 봐요. 학교에서 강조 하는 건 일단 성적이지요.

혜린 성적 좋은 애들은 심화 반으로 모으는데 그들에게 특권이 많이 생기니까 만 학생은 차별을 받아요. 심화 반 학생들은 수강신청을 먼저 가능하게 열어주니까 만 학생들은 불리하죠. 심화 반은 컴퓨터가 있는 자습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인강도 들을 수 있고, 모의면접과 논술도 해주고 대학교 입시설명회도 심화반만 들을 수 있게 해요. 기숙사 들어가는 것도 성적대로 짜르고, 상위 열 명은 사랑방, 그 밑 열 명은 진리반 이렇게 나누어요. 사랑 반, 진리 반은 바이올린도 사다주면서 수업 듣게 해요. 매 시험마다 성적이 바뀌니까 심화

반에 들어가기도 하고 탈락되기도 하니까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경시대회는 심화 반은 무조건 하게 만드니까 대부분 그들이 상을 받아가지요. 일부학생은 학생부 세부 특기사항 같은걸 자기가 적을 수 있게 해주고 어떻게든 대학교를 가게 만들어요.

보석 예체능은 순위가 나오니까 다들 볼 수 있게 현수막을 걸어서 상을 줘요. 그걸 보며 상을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성적이 좋아 상을 받은 사람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스 받아요.

민상 국영수 선행학습관련 경시대회는 하지 말라고 공문이 나와서 경시대회도 수학경시대회 이렇게 이름을 하면 안 되니까 창의대회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그대로 하는 것 같더라구요. 국어는 한글바로알기대회 이런 걸 하는 거죠.

지원 뽀이 먼저 중위권학생들을 계대에 넣고 시작하기도 해요.

| 두 번째 뒷담회, 마무리 소감 한마디

대동 학교 선생님의 위안부 관련된 이야기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거는 진짜 아니지. 성희롱이기도 하고 역사에 대한 모욕일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니 속에 있는 게 좀 풀리는 기분이에요. 학교 뽀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 못 꺼내니까.

민상 남녀공학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교내 연애금지사항이 있다는 게 충격적 이었어요. 이건 진짜 없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교사 개인적으로도 헤어졌는지 물어보고, 비밀연애를 공개 하는 건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니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나온 것 같아 좋았습니다.

지원 심화반 특별대우를 하고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게 옛날부터 문제였

는데 아직까지 그렇다는 건 문제라 생각해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연 아픈데 보건실 2시간까지 밖에 못 있는 서러움이 기억에 남고 이야기 나눠서 즐거웠어요.

진욱 교내 연애나 위안부, 한문 쌤 어깨 주물러 주는게 기억에 남아요.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행동한 대단한 또래가 있어서 놀랐어요.

혜린 학교에 사고가 나면 물어려 한다는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도 알아가고 내 이야기도 할 수 있어 좋았어요.

보석 한문 쌤처럼 힘내라고 하면서 만지는 쌤들 많은데 불쾌한대도 응원 하듯이 하니깐 말을 못하거든요. 저만 그런게 아니구나 하고 느꼈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게 편해서 좋았어.

민성 특별반이랑 상벌점제가 인권침해임을 다시 느꼈고 평소에 학교생활 하며 인권침해문제가 많은데 딴사람한테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여기 와서 이야기 나누어서 좋았어요.

진성 심화반이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기회도 없고 계속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고등학교 가서 힘들겠다 싶었고 재밌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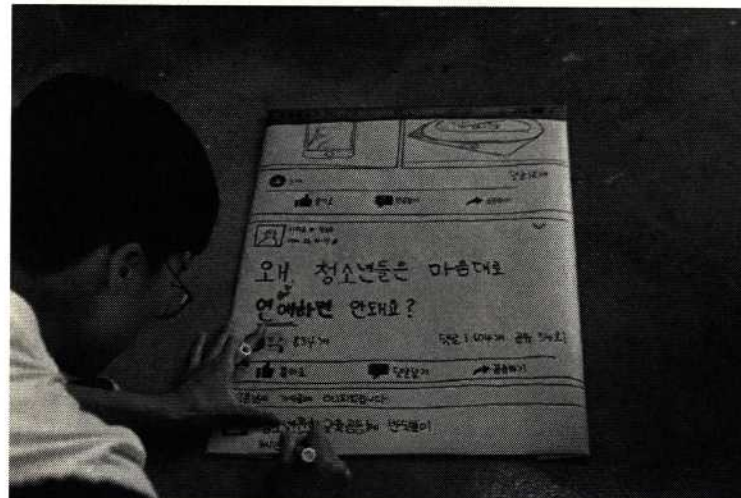
창목 위안부 이야기가 공감가고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누어서 즐거웠어요.



_두번째 뒷담회 현장



_피켓 I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
교복에는 정해진
성별이 없다



_피켓 II
왜
청소년들은
마음대로
연애하면
안돼요?

4. 세 번째 기획프로그램

참여형 인권캠페인 청소년인권광장 S.A.M -Saturday Afternoon Meeting

두 번의 뒷담회를 마치고 뒷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인권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참가 가능한 참여부스와 뒷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권침해와 차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국민마이크'가 대구에 찾아와서 기획단이 설문결과를 가지고 참가하여 청소년인권을 보장해달라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캠페인 일시 : 2017년 6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대구 동성로 한일CGV앞 광장

| 참여프로그램_청소년인권침해+차별 '나야나'



청소년인권침해+차별 '나야나' 설문결과

	내용	득표수
1	방학 시작했다 방학 끝났다. 방학 같지 않은 짧은 방학	149
2	잠 좀 자자! 너무 이른 등교시간+너무 늦은 하교시간	127
3	예전엔 길다고, 요즘엔 짧다고 일단 하고보는 교복단속	79
4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성적차별	71
5	제발 좀 쉬자. 강제 보충·야간'자율'학습	59
6	교복은 너무 불편해요. 체육시간외 체육복 착용 금지	57
7	놀고 싶은 건 본능인데. 우리만 안 하는 학교축제	55
8	급할 때는 어떡해. 휴지 없는 화장실	55
9	교실인가 찜통인가 너무 더운 교실	54
10	선생님 마음대로 상벌점제도	53
11	선생님 눈에 아파 보여야 아픈건가요? 보건실 이용 및 조퇴 제한	49
12	선배 되면 안 그래야지. 극단적인 선후배차별대우	49
13	왜 여학생은 치마교복? 선택하지 못하는 교복	46
14	우리도 시민이예요. 투표하지 못하는 청소년	43
15	내 첫 끼인데. 엉망진창 학교급식	41
16	우리가 테러범인가? 소지품검사	41
17	지긋지긋하다. 외모 차별	38
18	누구를 위한 학칙인가? 불량한 학교 학칙	36
19	급식시간이 미션시간인가. 너무 짧은 식사시간	34
20	우리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교내 연애금지	25
21	신데렐라도 12시까지인데. 10시이후 출입금지	23
22	모든 청소년이 학생은 아니예요. 자퇴청소년에게 불평등한 사회	22
23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19
24	내 몸은 소중한데요! 직접·간접 체벌	17
25	우리는 청소년노동자입니다. 청소년노동인권침해	12
총계		1,254

| 참여프로그램_PICK 권리 UP '날아라 슬리퍼'



| 전시프로그램_이거 실화냐? 뒷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 국민마이크in대구_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청소년 목소리



5. 네 번째 기획프로그램

우리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뒷담회' III 청소년 성소수자를 말하다

세 번째 뒷담회는 6월 서울, 대구 등에서 진행되는 퀴어축제를 맞이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용어를 알아보고 나에게 커밍아웃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임일시 : 2017년 6월 17일(토) 오후 3시

모임장소 : 반딧불이 강당

*참가자 일부는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민상 안녕하세요. 오늘 뒷담회 진행을 맡은 석민상입니다. 매년 뒷담회에서 그러했듯이 오늘도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발언은 조심해주시고 특히 오늘의 주제가 성소수자인 만큼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뒷담회는 참가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소수자와 청소년의 연애 그리고 성'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도록 몇 가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성소수자에 대한 용어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에는 성소수자를 말하는 단어나 개념이 적혀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테니 인터넷 검색이나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빈칸을 채워주세요.

| 단어로 알아보는 성소수자

민상 빈칸을 채울 수 있는 정답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보면서 몰랐던 단어가 있나요?

문빈 퀘스처너리요

민상 성 정체성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 계속 바뀔 수 있다고 해요.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실히 결정하지 않고 유보하는 상태인 사람을 퀘스처너리라고 합니다.

다운 드랙킹, 퀴도 처음 들어봐요.

지원 성별정체성과 성적정체성의 단어도 헷갈렸고 범성애자와 다성애자의 개념도 혼란스러웠어요. 범성애자는 모든 성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성별을 떠나서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성애자는 모든 성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새로 알았어요.

민상 성적지향은 누구에게 끌리냐이고 성정체성은 나의 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로 설명되는 것 같아요.

지원 젠더퀴어는 개념이 계속 헷갈리는 것 같아요. 호모라는 단어가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인줄 알았는데 동성애를 혐오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것도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문빈 젠더퀴어는 성정체성을 아직 안정한거예요. 그리고 아웃팅은 타인에 의해 알려지는 건데 이건 정말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민상 게이도 처음에는 동성애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였는데 요즘은 남성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원래는 호모 섹슈얼 이었는데 호모라는 단어가 혐오적으로 쓰이니까 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라 하더라구요.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수술을 한 사람들만 지칭

하는 줄 알았는데 수술을 안하더라도 생물학적 성별을 다르게 정체성으로 확립한 사람이라는 개념도 새로웠어요.

다은 퀴어시네마는 동성애를 다룬 영화인건가요?

나연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성소수자를 다룬 영화인거죠. 보통 성소수자라고 하면 동성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퀴어의 존재를 알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 단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민상 혹시 주변사람이 이런 용어를 몰라서 곤혹스럽거나 당황스러운 경험 이 있나요?

다은 용어에 대한 건 아닌데 최근 퀴어 이야기가 수면에 많이 떠오르니까 어떤 가족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들의 표현은 옹호적인 것 같았지만 '너도 레즈냐'라는 말을 하며 쉽게 놀리듯이 말하는 걸 봤어요.

나연 제가 여자친구 있다고 하면 너 레즈냐고 놀리는 것도 레즈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정말 남성, 여성 둘만 있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최근 학교에서 백일장 주제로 양성 평등만 하는 것도 그렇고, 친구들에게 성소수자 단어나 성소수자에 대해 알려준 적은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민상 용어의 인식이 넓어지면 성소수자의 인식이 확산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존중하자는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성정체성으로 시스, 트랜스젠더 이런 걸 같이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용어가 평등함에 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니까 용어를 공부하는 것이 성소

수자의 인식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 만약 친구나 가족이 커밍아웃한다면?

민상 다음 준비한 코너는 친구가 커밍아웃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포스트잇에 한번 생각을 적고 같이 나누어 봐요. (작성을 마치고) 첫 번째 의견입니다. 무지개인권연대 대구사무실에 가서 물어본다. 누가적은건가요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아나치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 전문가를 찾아가야죠. 자료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지개인권연대는 성소수자를 위한 단체이고 퀴어축제도 거기서 하나까요. 퀴어축제도 참가할 생각이예요. 청소년섹슈얼리니모임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커밍아웃하면 그 순간에는 "알겠어"라고 할 거예요. 신경 쓰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신경 안쓰려고 해요.

다은 멍둥이라는 단체도 있어요. 저는 "아 그렇구나"라고 적었는데 그냥 그러하니 그렇구나 라고 적었어요.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라고 하고 "저녁 뭐 먹을까?"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로 느낄 수 있게 말 할 것 같아요.

나연 말해주면 고마우니까 고맙다고 말 할 것 같아요.

문빈 트로이시반이 커밍아웃하는 걸 영상으로 올린게 있는데 아버지한테 말했는데 아버지가 고맙다고 말했어요. 다음날 가족이 한사람씩 방에 와서 한마디씩 하는데 부담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커밍아웃하기 전부터 말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 할 것 같아요. 커밍아웃해도 되는 분위기가 사람들에게 만들어 졌으면 좋겠고 거리낌 없다는 티를 내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평소의 대화에 녹여내는 거

죠. 반에 동성인 누구를 좋아한다는 말도 꺼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기도 할 것 같아요.

진환 커밍아웃이 자연스러우면 좋겠지만 자연스럽기 힘든 사회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커밍아웃 하는 사람은 큰 결심을 하고 말하는 것일 텐데 일단 말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힘든 것이 있는지 도움 될게 있는지 물어볼 것 같아요.

민상 커밍아웃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커밍아웃 했는데 카톡으로 갑자기 단답을 하거나 연락이 뜸해지면 커밍아웃한 사람이 소외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하던 대로 연락하고 지내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원 아무렇지 않게 힘든 일은 없었는지 가장 먼저 묻고 싶어요. 일단 다들 아무렇지 않게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행동하고 힘든 일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아직 대한민국이 성소수자를 보는 시각이 안 좋으니까 힘든 일이 있었을 텐데 가장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위로를 하고 싶어요.

택준 혹시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물어 볼 것 같아요. 동성이랑 친구로 지내고 싶은데 나한테 마음 있다고 하면 편하게 못 지낼 것 같아요.

민상 주위 사람이 커밍아웃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내하는 자료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축하한다는 말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최대한 듣도록 노력하세요. 다섯 번째는 예전과 다름없이 서로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상상해보는 것. 일곱 번째는 날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같은 질문은 삼가하고 여덟 번째는 반드시 비밀을 지키고 아홉 번째는 모르는 것이 있다면 숨기는 것보다 솔직해지는 것. 열 번째는 유머감과 친

근한 표현은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 끝없는 논쟁 그리고 마무리 소감나누기

민상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여기 계신 분들도 관점이 다양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소수자라는 그 자체,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그 자체에 문제에 초점을 두고 다가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적 측면에서 반대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시선에서 시야를 넓혀서 성소수자에서 성을 떼고 소수자로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은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나의 문제를 밝히지 못하고 가지고 산다면 계속 차별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차별받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수자를 배려하고 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시선과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에 집착하지 말고 소수자라는 입장에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야를 넓히고 공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다운 저는 오늘 다양한 용어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라 좋았고 얘기 중간 중간에 좀 유명한 분들? 배우나 가수분들 이름이 나왔는데 저는 영어를 싫어하고 외국 분들을 한분도 몰라서 공감하기 힘들었어요. 다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었어요. 분명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 말고는 모르는데 분명 더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이야기하고 그분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택준 저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내 생각이나 내 삶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그런 삶이 있는 거고 그것도 나름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딱히 신경 쓰지 않아요. 친구가 그렇더라도 저를 사랑하는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응원할게요.

아나치 홍석천씨도 주류질서에 편입되어 사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SNL도 홍석천이 나오면 어떤 남성분이 여성을 좋아하다가 헤어지고 나면 홍석천이 그분을 노리고 있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 이상 가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다운 저는 홍석천 그분이 방송에 나왔을 때 남성과 말 한마디 하고 나면 샤랄라하는 분위기와 음흉한 눈빛을 보내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걸 웃음거리로 만들어가면서 게이는 모든 남성을 무조건 사랑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그걸 알고 그러는 건지 아님 프로듀서가 그렇게 하는 건지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문빈 미디어가 어떻게 성소수자를 소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나치 교무실 앞에 담임을 만나러 갔다가 뒷담회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교무실 앞에 홍보를 하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게 되었어요. 성소수자 이야기도 혼자서만 생각해봤지 또래 청소년과 이야기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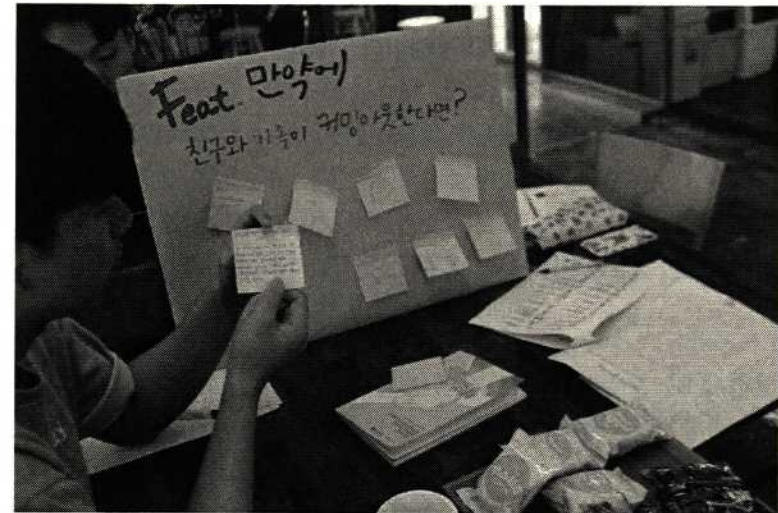
문빈 저도 더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알지는 못하니까 더 공부하는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많은 다른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나연 저는 주변에 인권에 관심가지는 청소년들이 적어서 그런지 게이, 호모, 장애인 이런 말 진짜 많이 나와서 들을 때 마다 표정 완전 안 좋아 지거든요. 트위터 보면 전문적인 말들도 많고 생각이 굳어질 수 있는데 다른 견해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원 다양한 이야기가 많아서 좋았고 용어사전을 보면서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더 알아가고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회가 좀 바뀌어 갔으면 좋겠어요. 동성애자나 성소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보다 인식 자체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성소수자

분들은 성인 성소수자보다 더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모임이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울타리 같은.

진환 인권은 계속 나아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퇴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사람들을 만나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_친구나 가족이 커밍아웃한다면?

6. 다섯 번째 기획프로그램

우리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뒷담회' IV

짧은 방학, 긴 보충. 청소년의 휴식권

네 번째 뒷담회는 다가오는 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의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지역 중, 고등학교 방학기간과 보충수업 기간을 확인해보니 중학생은 평균 2주, 고등학생은 평균 1주의 진짜 방학이 주어집니다. 나머지 기간은 보충수업을 하거나 자율학습을 하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방학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쉼다는 것은 무엇인지 평소에 잘 쉬고 있는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모임일시 : 2017년 7월 16일(일) 오후 2시

모임장소 : 반딧불이 강당

*참가자 일부는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민상 안녕하세요. 오늘 뒷담회 진행을 맡은 석민상입니다. 오늘 뒷담회도 서로 존중하는 태도와 누구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학 시즌을 맞이하여 청소년의 휴식권입니다. 전반적인 청소년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2부에는 휴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인권캠페인 때 했던 인권침해 '나야나' 스티커 설문문을 했던 판을 작은 크기로 만들어 왔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 학교 축제에 휴대폰 압수가 왜말이나

민상 많은 항목에 스티커가 붙었네요. 학교축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문빈 학교 축제가 재미가 없어요. 완전 노잼. 작년에 축제를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딱 하루 하는데 휴대폰을 강제로 내야 해요.

아나치 보통 동아리 별로 축제준비를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올해 10월에 해요. 저는 신문부 동아리를 하는데 축제 참가했었지만 별로였어요.

지원 축제가 있었지만 저도 재미가 없었어요. 다른 학교 축제가 더 재미 있었어요. 다른 학교는 귀신의 집을 했는데 저희학교는 학생 한명이 귀신의 집하다 코빠가 부러진 적이 있어서 그 후로 안했어요.

진욱 저희도 축제를 2~3일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음식부스하고 강당에서 동아리들이 부스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 수업시간 외 체육복 착용 금지, 두발단속, 화장단속

민상 체육복 금지는 좀 어떤가요?

진욱 저희는 쌤들이 입지 말라고는 하는데 그냥 입어요. 고3도 그렇고 1,2학년도 다 무시하고 그냥 입어요.

지원 여자교복이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손을 들면 치마 안에 넣은게 다 나와서 진짜 불편해요. 교복이 불편해서 체육 끝나고 교복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쌤들이 학칙이 있으니 교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하거든요.

민상 외모차별은 청소년의 문신이나 타투, 염색 이렇게 많죠?

문빈 저는 자연갈색이라 염색했다는 오해를 받기도 해요.

지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자연갈색 확인증을 부모님에게 받아오라고

교실에서 친구들 다 있는데 불러내서 말한 적도 있어요.

아나치 확인증 만들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게 나올 것 같아요.

나연 작년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클렌징티슈 가져와서 막 얼굴 닦아낸 적 있어요. 화장단속 한거죠.

아나치 학교에서 성적이 잘 나와야 학교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니까 단속하는 것 같아요. 공부하라고.

지원 화장과 공부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진욱 저는 중학생 때 친구가 혼혈이라 왕따를 당한 걸 본 적 있어요.

아나치 혼혈인데 머리색이 갈색이면 염색해오라고 할까요?

진욱 그러게요.

민상 급식시간이 짧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어때요?

지원 우리학교는 학년별로 급식 먹는 순서를 차별했어요. 3학년 먼저 먹고 1학년 나중에 먹고, 3학년들은 먼저 먹을 수 있는 걸 아니까 천천히 나오고 늦게 와도 먼저 먹고 그래요. 모든 학년이 남학생들이 먼저 먹는데 그 이유가 '남자가 빨리 먹으니까'였어요. 남자에들에게 음식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있었어요.

| 보호인가? 통제인가? 청소년 보호주의

민상 통금시간은 어때요?

아나치 저는 12시까지예요.

진욱 저는 새벽3시? 친구들이나 친구의 친구들이랑 공원에서 이야기하고 놀아요.

민상 왜 통금을 할까요?

지연 보호? 저는 통금시간이 토요일은 오후 5시 막이래요.

택준 청소년이라서? 해졌을 때 무서우면 아침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죠.

지연 학원 갔다가 밤 11시에 들오는 건 괜찮은데 아닌 날은 일찍 오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민상 나는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놀다가 그냥 집에 가면 양심에 찢려서 일부러 집에 들어가기 전에 독서실 잠깐 들렀다가 책이라도 잠깐 보고 집에 갔어요.

택준 나이에 대한 체통이랄까 나이에 걸맞게 놀라는 것 같아요. 셋다운제 때문에 집에서 게임 못하고 피시방이나 찜질방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민상 학원도 10시까지인데 게임도 10시까지면 뭐 할 수 있는게 없네요. 바로 집에 가라는 거네.

지원 그래서 학원들이 몰래 빛 안 나가게 안쪽에서 수업 한대요.

택준 애초에 청소년 보호법이 보호의 명목도 있는데 우리가 담배나 술 같은 것에 대해 자신만의 판단기준을 가질 기회와 선택조차 주지 않는거죠. 20살 됐다고 판단력이 잘 서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이라고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민상 청소년 보호주의 이런 거잖아요?

아나치 청소년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로 통제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은 보호해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비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며 청소년을 주체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을 대상화한다고 보통 말해요. 청소년들이 대상화되는 경우가 많죠.

진욱 청소년들은 법을 기준으로 술 담배를 못 사게 하지만 사실 어른들 중에서 술, 담배 중독에 걸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것 같아요.

택준 쉬쉬하고 안된다하니 더욱 뒤에서 하게 만들어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청소년한테 성적인 부분이나 술, 담배를 안 된다고 하니 까 음지에서 더 하는 거죠.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 주는 게 필요할 텐데.

| 나는 이미 학생인데 학생답게 하라구요?

택준 나는 교복단속을 당해본적은 없지만 교칙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문빈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강당에 쪽 일렬로 걷게 한 다음에 교복이 짧아 보이는 애들한테만 교복 길이 늘려오라고 한 적 있어요.

나연 강당에서 학년별로, 반별로 돌아가면서 불러내서 교복이나 화장 단속한 적도 있어요. 보통 자로 무릎 위 몇 센치 이렇게 단속하죠.

문빈 단속해서 걸리면 수선비를 지원해주지도 않는데

민상 왜 교복 단속을 할까요?

나연 학생답지 않아서?

택준 실제 안 해오는 애들도 많고 보는 쌤의 상태에 따라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지원 쌤들이 맘에 안드는 학생들은 더 딱시게 보는게 있어요.

택준 그래서 그런지 제 가방단속 진짜 많이 했어요.

민상 학교 다닐 때 두발, 체벌 이런거 진짜 익숙해져있었는데 지금생각해보면 단속이라는 건 진짜 무서웠던 것 같아요.

택준 그런게 문제라는 걸 인식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문빈 있죠, 많아요.

아나치 성적이 좋아서 학교생활이 힘든 경우도 있지 않나요?

택준 있죠. 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입학 첫날에 교감 쌤이 와서 성적 좋더라고 기대할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첫날 야자시간에 째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담배로 걸렸는데 추억이죠. 더 큰 실망을 하셨죠. 학생들도 먼저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호하게 싫다 안하겠다고 말하는 게 되면 좋겠어요.

진환 등교시간은 다들 어떻게 되요?

진욱 7시반

문빈 8시 15분

아나치 8시

택준 우리나라 학교 시스템 자체가 강압적 인게 있어서 모든 문제들을 아

우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공부하고 학원가고 숙제하고 쉬면서 폰 만지는 건데

지원 휴식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택준 네 청소년이 쉬고 놀 수 있어야 한다!

지원 각자 내가 생각하는 휴식권을 포스트잇에 좀 적어주세요. 다 적었으면 한번 확인해볼까요. 휴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적은 분도 있네요.

나연 저에게 휴식이란 스트레스 안 받는거예요. 오늘의 뒷담회도 휴식인 것 같아요.

민상 다들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잘 보장받나요?

나연 학교가 잠을 못 자게 해요. 등교시간도 이르고 학교 내에서 친구들이 자고 있으면 깨우기도 해요.

문빈 학교 수업은 모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잠 오면 자야죠.

택준 그런데 나 하고 싶은 것만 다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민상 수업을 안 듣고 자면 수업내용을 모르는게 나인데 그에 따른 피해도 나에게 오는 건데 수업을 무조건 듣는게 옳은 것일까요? 수업시간에도 내가 쉬고 싶다면 휴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욱 쌤들이 깨우는 이유가 교감이나 교장이 지나가다 보면 쌤들이 불러가서 혼나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민상 한자로 적은 분도 있는데 한자 뜻은 뭐죠?

지원 쉴 휴, 쉴 식, 권리 권이죠

택준 저는 쉴 권리라고 적었는데 부모님이 폰 만지는 거 보고 뭐라 하는 걸 말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하는 말이 틀린건 아닌데 내가 쉬기 위해 하는 행동이 휴식이 되게 그런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욱 주말에 학교가지 않고 방학 때 학교가지 않아도 되는 것. 개인적으로 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휴식이라 생각해요. 학교가면 못 쉬잖아요. 누워있기만 해도 편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때가 휴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제가 좋아서 나오니 편하다고 느끼기도 해요.

아나치 의무적인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썼어요. 방학 때는 도서관이나 사람들 만나면서 자기계발을 할 생각인데 학교 때문에 휴식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고 싶을 때 못자니까. 수업 시간에 잠을 자면 자주 깨우기도 하고, 수업시간에 자면 뒷통수를 때리는 쌤도 있어요.

문빈 저는 쉴 권리라고 적었어요. 정말 쉬는게 필요하니까. 폰 만지고 자고 놀러가고, 학교마치고 어디가고 놀러가고. 저의 쉴 권리는 잘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학교랑 학원 때문에...

민상 저는 행복추구권이라고 적었어요. 쉴 권리는 다른 권리랑 다르게 구체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명시된 내용도 없는 것 같고요. 헌법에 보면 행복추구권이라고 있더라구요. 우리가 못 쉴 다는건 헌법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아동권리협약에도 아동의 쉴 권리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고 해요.

아나치 청소년의 존재를 예비시민이라고 보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 독립된 공간과 청소년 휴식의 연관성

민상 부모님과 같이 사는 여부가 휴식권에 진짜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친구나 지인이랑 통화할 때 특히 전화의 자유로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공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휴식권이라고 생각해요. 독립하면 부모님이 방탕한 삶을 살거라 하는데 부모님이랑 살 때보다 질서정연하고 정돈된 삶을 살거든요. 공간을 분리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독립된 공간을 가지는게 중요한데 청소년이나 청년이 독립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청소년, 청년이 돈을 벌어야 독립을 하니 최저임금이나 취업률이 휴식권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취업을 해서 인간답게 휴식하고 싶다는 마음이 결국 휴식권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원 돈을 버는 것도 좀 더 나은 나의 삶을 살기 위해 하는 거니까.

민상 반딧불이 공간도 청소년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원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택준 1인 가구로 독립하고 싶어도 청소년이 혼자 자기 이름만 주거에 등록 하는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지원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집에서 나와야 하는 사람들은 독립하지도 못하겠네요.

민상 이런 사례는 휴식권을 넘어 생존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진욱 저는 중학생 때부터 부모님 때문에 자취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택준 휴식권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권리들이 중요하긴 한데 부모님이 지금까지 키워준게 있는데 막 거리를 두기도 그렇고 계속 붙어있기도 그렇고, 적절한 거리를 두는게 어려운 것 같아요.

민상 집이 휴식의 공간이 안 되는 이유는 부모님이 큰 것 같아요. 모르는 사이일 때는 하지 않지만 부모님이기 때문에 쉽게 하는 말들이 휴식권이 침해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 내가 원하는 휴식권은

민상 마지막으로 내가 바라는 휴식에 대해 한마디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원 '수고했어 오늘도.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자. 한 번쯤 사치도 부러보고!' 라고 적었어요. 힐링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경을 써서 무언가를 하고 나면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요. 부모님이 무침회랑 납작만두를 사오셨는데 맛있게 먹고 영화를 봤는데 그게 힐링이고 그게 휴식권이예요.

문빈 '자고 싶은 만큼 자기,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가기, 여가활동 간섭 받지 않기' 라고 적었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하루에 한번은 놀러 가면 좋겠어요. 가까운데라도. 시내도 좋고. 놀 때 부모님이 간섭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욱 부모님 평생 안보고 자취해서 평범하게 사는 것. 부모님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나연 내가 쉬는 거라 생각했을 때 아무도 간섭안하는 것. 나는 쉬기 위해 무얼 하는데 그게 쉬는 거냐고 뭐라고 하는 거죠. 폰을 만지는 것도 휴식인데.

택준 날씨 따뜻할 때 집 옥상에 파라솔 펴두고 테이블 두고 달달한 크리스피도넛 한 입 먹고 아메리카노로 달달함을 잡고 동화책 하나 읽는 것. 그리고 여유 있게 가득 들어있는 한 갑. 그거면 충분하죠.

그러면 3~4시간씩 충분하죠. 그리고 내려와 땀을 식히기 위해 샤워하고 캔맥에 땅콩이면 완벽해요.



_미니 설문조사 '청소년인권침해+차별 나야나'



_열심히 토론중인 뒷담회 참가자들

7. 여섯 번째 기획프로그램

우리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뒷담회' V 대구 교육감 정책평가

다섯 번째 뒷담회는 대구 교육감의 정책 중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때 체감할 수 있는 항목 일부를 선정하여 평가했습니다. 대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정책 내용과 자체평가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모임일시 : 2017년 8월 19일(토) 오후 2시

모임장소 : 반딧불이 강당

민상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석민상입니다. 어느덧 상반기 4회의 뒷담회를 마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뒷담회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차별받거나 차별인지 몰랐는데 차별이었던 청소년인권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양한 형식으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었죠. 뒷담회에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캠페인도 했었고 주제를 정해 성소수자, 휴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존의 뒷담회를 키워드로 정리할 거예요. 지금까지 뒷담회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어봤다면 남은 시간에는 우리의 요구를 정책이라는 결실로 맺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자유학기제나 9시 등교, 학생인권조례 이런 정책들이 각 지역에 있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도 알아보고 우리가 직접 정책을 만들어 제안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럼 1부로 우리가 뒷담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키워드로 만나볼까요?

| 키워드로 만나는 뒷담화

민상 먼저 뒷담화를 시작할 때 늘 평등한 약속을 함께했어요.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비하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않는 것. 본격 키워드로 들어가서 첫 번째 키워드는 '선생님의 체벌'입니다. 직접 체벌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직접체벌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가하는 체벌이 학교에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다음 키워드는 '학교 소리함'입니다. 학교에 소리함 있는 것 알고계신가요? 의견을 써서 제출한 분도 있었죠. 실제 반영은 안되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비밀의 함이라고도 하죠. 그다음 키워드는 '선후배간의 체벌'입니다. 학교 안 강력한 위계 때문에 학생 간에 폭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니다. 그 외에도 '이상한 학칙들', '나이주의', '운동부', '성차별', '성희롱', '화장실', '연애', '일반계고', '축제', '성소수자', '성적차별', '휴식권' 등 여러 이야기가 나누었어요. 그럼 오랜만에 만났으니 그간 별일은 없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 학생할인은 되고 청소년 할인은 안 되고

택준 저 놀러 갔다 왔어요. 시외버스를 학생요금으로 타려고 오토바이 면허증을 주면서 청소년이라고 말 하니 학생증이 아니면 학생요금으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청소년이 아니라 학생할인이래요. 그래서 할인을 못 받았어요.

진욱 저는 수시가 거의 확정이라 학교가도 자면 되고 평화롭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민성 며칠 전에 장염에 걸려서 조퇴하려고 했는데 부모님 전화 없으면 못한다고 해서 그냥참고 있었어요.

| 화장실 같이 쓰면 볼일을 못 보나요?

아나치 키워드 소개할 때 화장실이라는 키워드가 공감되는데 저희 학교는 학생의 책임감을 키우겠다고 화장실에 휴지 자판기를 만들었어요.

진성a 화장실 문이 안잠기고 건의해도 고쳐주지 않고 있어요.

민성 교무실 화장실 앞에 학생출입금지라고 적혀있죠.

아나치 진짜 웃긴게 교사화장실에 휴지뿐만 아니라 비데까지 있더라구요

진성b 저희 학교는 남중인데 애들이 휴지에 물 묻혀서 막 던지고 붙이니까 휴지가 사라졌죠.

민성 학교 천장이 석고인데 아직까지도 안바뀌고 있어요.

택준 중학교 다닐 때 계속 천장에 슬리퍼를 던져서 다 부서지고 연기 나고 그래서 한동안 거기 못 지나간 적도 있어요.

| 상벌점이 아니라 그냥 벌점만 주는 거 맞죠?

민상 요즘 체벌은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상벌점제로 하나요?

진성b 상점은 안주는데 벌점만 무지 주죠. 남자 쌤들이 학교에 많은데 쌤들이 당구큐대를 들고 다니는데 때리지는 않지만 위협적이에요. 빗자루 뒤쪽 플라스틱을 들고 다니기도 해요. 때리지는 않지만 이것도 위협적이죠.

택준 서부공고는 담배 피는걸 두 번 걸리면 반삭 시키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다 싹싹이에요.

진성a 저도 두발단속 걸리면 반삭 해야 한다고 사촌형한테 들었어요.

택준 사촌동생이 중학생인데 전학 간 학교는 투블럭 컷이 안되요. 전학 간 날부터 계속 벌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성 상점 받는 기준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진성a 쌤들이 심부름 시키고 준 적도 있어요. 박스 같은거 조립하는거 도 와주면 상점 준다 해서 받은 적도 있어요.

|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인가요?

민상 선후배들 사이 문제는 없나요?

택준 서로의 유대감이 있을 때는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좀...

진욱 점심시간 말고는 마주칠 때도 없고 유대감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성a 작년에 저희 학교 동아리에서 선배가 제 친구한테 자기는 장난이라며 계속 시비를 건 적이 있어요. 같은 학년 다른 반에 출입 금지하는 곳도 많아요. 학교가 작은 사회라 생각하고 사회를 배우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친구도 제대로 못 만나고 선배들과 친해질 기회도 없고 공부만 하는게 사회인가 싶어요.

택준 나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인문계 다니는 친구들은 방학에도 학교를 계속 가잖아요. 한주만 방학이고 바로 보충을 나가는데 안가고 싶으면 안가면 되지 않냐니까 학교에서 강제로 시킨대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안가면 안 되냐니까 보충수업시간에 학기

중에 나가야하는 진도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성a 저는 학교 방송부인데 아직 후배들에게 덜 가르쳐 준 게 있어서 3학년이지만 계속 방송부에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선생님이 계속 방송부 나오면 짜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교무실 안거치고 방송실 가는 문이 있었는데 그걸 막았더니 교무실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못 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 결국 성적으로 대학가는데 자유학기제 꼭 해야하나?

진성b 자유학기제 필요성 느낀 분들 있나요?

민성 1학년 2학기 때 배운 내용이 2학년 올라가서도 적용 되는게 많으니까 자유학기제가 끝나고 2학년이 되면 시험도 잘 못 치겠던데요. 그리고 직업체험을 하지만 각자 원하는 직업에 맞춰서 체험 하는게 아니고 학교에서 지정 해주는 걸 하니까 진로에 도움도 크게 안되는 것 같아요.

진성b 자유학기제로 꿈을 가진 사람 있나요?

진성a 없죠. 강사 불러서 체험 이란걸 하는데 딱히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진성b 우리학교는 시험안치는 학기로 그냥 인식 되어버려서 친구들이 2학년 되니 성적이 다 떨어졌죠. 자유학기제에는 다들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에요.

민상 자유학기제가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하라는 건데 취지에 맞게 자유로운 탐색이 안 되고 학년이 지나면 성적이 떨어지고. 결국 나한테 돌아 오는건 없다고 많이 느끼나봐요.

지원 어떤 학교는 학교 밖으로 나가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곳도 있
다던데요?

진욱 어차피 중학생 대부분이 인문계를 가고 다들 수능을 치잖아요. 결국
수능으로 대학을 가니까 자유학기제를 하더라도 성적이 대학교 진
학과 이어지니까 자유학기제가 아직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 대구교육감 교육정책과제 평가

대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대구교육감 5대 과제(42개 세부과제) 중
일부를 선정하고 대구교육청에서 과제에 대한 평가 내용을 참고하여 설문을 진행
함. 세부평가 이유는 부록 참고.

과제 1.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시스템 구축

세부과제		평점 (5점만점)
1-1.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		3.1
1-3.행복한 학교문화를 통한 폭력제로학교 만들기		1.3
1-4.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 및 관리 시스템 구축	1-4-1.노후시설 정밀점검 및 조치	2.1
	1-4-3.노후 냉.난방 시설 개선	2.8
	1-4-6.안전한 식수 시설 관리	3.1

과제 2. 바른 품성과 행복역량을 갖춘 인재육성

세부과제		평점 (5점만점)
2-2.학생·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배움과 가르침이 즐거운 협력학습 정착		1.7
2-4.2015학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조기시행		1.1
2-5.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으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2-5-1.진로맞춤형 특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	3.1
	2-5-3.학생 주도의 동아리활동 활성화	2.2
	2-5-5.일반고와 특성화고 간 진로변경 기회 확대	1.7

과제 4. 지역간·계층간 교육서비스의 상향 평준화 정책 추진

세부과제		평점 (5점만점)
4-3.학교 내 예술교육활성화로 예술분야 공교육 역할강화	4-3-1. 1인 1악기 연주 능력 배양	1.2
	4-3-2. 예술교사 지도역량 강화	2.3
	4-3-3. 학생 예술동아리 활성화	2.3
4-4.예체능 진로 집중과정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1.2
4-5.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 진로교육 강화	4-5-1.일반고 고3대상 직업과정 위탁 교육 인원 확대	2.4
	4-5-2.일반고 1,2학년 직업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2.1

민상 정말 많은 일들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네요. 이번 시간에는 대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우동기교육감(대구교육감)의 주요정책 중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혹은 다녔을 때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미리 뽑아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세부과제의 목표와 현황, 평가를 낸 자료도 함께 준비했어요. 한번 확인해보고 직접 평점도 내려 보고 이유도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만점은 5점이에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최고 5점,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최저 1점을 주면 됩니다. 평가한 내용들 중에 먼저 베스트와 워스트 정책을 한번 골라서 이야기해볼까요.

지원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준으로 정해봤어요. 베스트는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급식'이에요. 호산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급식이 잘 나와서 여기에 점수를 많이 줬어요. 학교를 다니는 원동력은 급식이고 그게 나았기 때문에 베스트이고 중요한 정책이에요. 워스트는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역시나 학교 급식이에요. 비닐이 나오거나 급식비리가 있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 워스트이기도 해요.

택준 베스트는 '행복한 학교를 위한 폭력제로 만들기'. 된다면 베스트입니다. 워스트는 '학생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배움과 가르침이 즐거운 협력학습'.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사도 교사지만 학생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인권이 중요시되니까 학생을 때리지는 못하고 대신 벌점을 줘야하는데 벌점 주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학생은 벌점을 받거나 간접 체벌을 받게 되는데 선생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배움과 가르침이 즐거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성 제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 하는 건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급식'이에요. 4점을 줬어요. 학교급식에서 비닐이 나왔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 급식이 맛이 없기는 하지만 사고나 위생에 문제가 되는 사건도 없었기 때문에 4점을 줬어요. 워스트는 '노후시설 점검 및 조치'인데 학교 우레탄 운동장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있고 석고 천장 방치도 여전히 있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진성b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 하는건 '진로맞춤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직업을 가진 분이 학교에 와서 연봉이나 꼭 알아두면 좋은 세세한 정보를 말해줘서 좋았어요. 워스트로 첫 번째는 '자유학기제'. 성적하락으로 피해보는 학생이 있고 외부 활동보다 내부 활동이 많고 직업을 고민하는 학기라는 인식보다 시험만 안치는 잠시 숨 좀 틔게 하는 정도의 학기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에프터스쿨제도에서 따라 만들어진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수준이 아직은 너무 못 미친다고 생각하구요. '학생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즐거움'이 저희 학교의 경우 수행평가로 이런 비슷한 걸 했는데 학생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고 설명했는데 이 과정이 수행평가 점수에 포함되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진성a 베스트는 '진로맞춤형 특색교육'이에요. 흥미 있는 학생들은 해보니까 좋은데 안내장으로만 나와서 안내지로 비행기 잡고 배 만들고 하면서 잘 안 알려 지는게 아쉬워요. 워스트는 급식인데요. 비닐, 머리카락이 급식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다른 선생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급식쌤이 덮으려고 한 적이 있어요.

진욱 저는 제일 좋았던 건 '학교 급식'인데요. 학교에서 급식당번 하면서 위생적인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워스트는 여기 평가 항목에는 없지만 작년에 고등학생 대표로 토론대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학교도 나갔거든요. 제가 일반계고 다니는데 저희학교가 특목고한테 이기면서 방송이 종료가 되었어요. 교육감이 특목고를 더 뛰어주고 편애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강호 저의 베스트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인데요. 저희 반은 급식에서 한 번도 뭐 나온 적은 없었어요. 워스트는 '노후시설 점검 및 조치'예요. 3학년 화장실 문에 손잡이가 없거든요. 손잡이를 돌리면 문 옆에 고리가 나와야하는데 손잡이만 있고 고장 난 것도 있어요. 화장실 벽안에는 개미가 살고 있고 천장은 비가 세는데 그대로 있

고 소화기도 거미줄 많이 쳐져있어요. 유리에 금이 생기면 예술인 줄 아는지 테이프만 붙여놓고 그대로 두더라구요.

아나치 저의 베스트는 '노후시설 정밀점검 및 조치'인데요. 저희학교가 낡은 곳이 많아서 그런지 화장실, 문 등 많이 고치는게 보이더라구요. 다른 항목은 체감이 안되는데 시설의 점검은 체감하고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느꼈어요. 위스트는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즐거운 협력'정착인데 학교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 청소년 정책 사례공유와 우리가 직접 만드는 정책

민상 이번에는 실제 청소년이나 단체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스트 정책을 하나 골라보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들고 싶은 정책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사례공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는 정책이지만 특목고 폐지를 바래요. 특히 대구에서 등교시간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등교하기에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스포츠클럽이 더 활성화 되면 좋겠어요. 특히 체육시간에 비오면 자습하잖아요. 그건 체육시수로 포함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고3 되면 체육시간에 자습을 많이 하는데 아예 제도적으로 체육시간에는 공부하는시간이 아니라 운동하는 시간으로 못을 박으면 좋겠어요. 고3의 운동을 필수로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에 컴퓨터가 많은데 학교 컴퓨터를 신청가능하게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성 저희학교는 자율동아리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동아리로 스트레스도 풀고 즐거움을 느끼는데 학교에서 동아리를 통제하고 선생님 내키는 대로 하니 자율동아리 의미가 없어지고 학생들도 만들려는 시도도 못하고 있어요. 동아리가 차별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산차별도 있고요.

강호 저희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시행했을 때는 별로 느끼는 것도 없고 시험만 안쳐서 다음해에 힘들었는데 자유학기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직업을 늘려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중간고사는 아니더라도 시험에 반영되는 작은 시험이 있으면 다음해에 덜 힘들 것 같아요.

진성a 저는 노후 시설점검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 노후 된 곳이 많거든요. 주변에 보면 10년 넘는 것도 많고. 학생이 편하게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 만드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디지털화가 빨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업방식도 칠판이 아니라 전자칠판에 하거나 테블릿 피시로 수업하거나.

아나치 저는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실시, 만 16세 교육감 선거권을 주장하는데 초등학생까지 포함해서 모든 학생에게 선거권을 주고 정책 만드는 데 참여하면 좋겠고 학생부권한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학생차별금지법 제정,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30만원 제공하면 좋겠어요. 학교밖에 나가서도 청소년들이 돈이 별로 없으니 학교 시스템에 의해 돌아 가는게 아닌 직접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확충되면 좋겠고 장애학생차별금지, 성별이분법 화장실 금지, 청소년노동인권조례도 제정되면 좋겠어요.

진성b 자유학기제를 폐기하거나 부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개선의 내용은 첫 번째로 내부 활동보다 외부활동이 많아져야한다고 생각하고 내부 활동을 하더라도 직업체험으로 하면 좋겠어요. 강사가 와서 직업을 설명해주니까 그 경험을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보충수업과 고등학생을 위한 야간자율학습 강제성 폐지하는 것이에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강제라서 청소년 인권을 무시하는 거라 생각해요. 세 번째는 공부 심화내용을 삭제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심화내용을 일상에서 안 쓰는데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진욱 저희학교는 자율동아리 등록하는 방식이 여러 학생들이 모여 신청서를 내면 쌤들이 검토해서 만들어져요. 선생님들의 검토 후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학생들이 신청하면 일단 등록하고 학생들의 활동여부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하면 좋겠어요. 학교 학생부가 힘이 없으니 힘 좀 강화되고 의견이 잘 반영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저는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이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동아리가 활성화 되면 좋겠는데 대학을 가는 건 내 직업을 찾기 위해 가는 건데 미리 직업탐색이 되게 자유학기제를 활성화 하거나 덴마크의 직업학교와 비슷하게 운영 했으면 좋겠어요.

| 마무리 소감 한마디

택준 너무 알차고 좋은 시간이었구요. 대구 교육감 정책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민성 제일 기억에 남는게 대구교육감 정책평가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들을 수 있어 좋았고 오딧세이 학교가 제안한 정책들도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강호 저도 이렇게 정책평가지 통해 대구교육감정책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해봐서 좋았어요. 그리고 대구뿐만 아닌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좋은 건지 생각하게 되어 좋은 것 같아요.

진성a 저는 저희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도 우리와 비슷한걸 알게 되어 좋았고 대구의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지만 우리학교의 현실을 알게 되어 좋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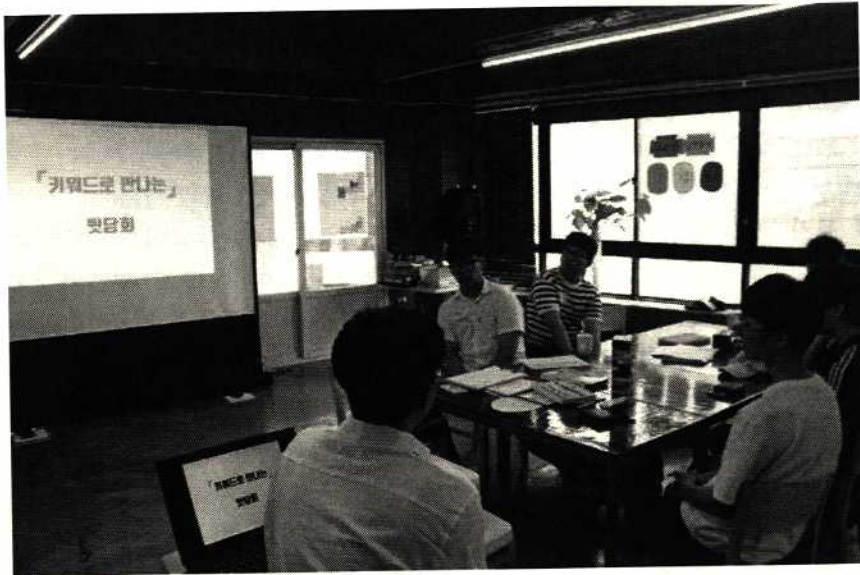
민상 저는 여러분의 참여가 열정적이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상입니다.

아나치 저는 교육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부에서 낸 정책들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런데 대구교육청의 정책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알게 되어 좋았어요.

진성b 제가 희망하는 직업이 수학교사거든요. 교육과 관련되어 얘기에 관심이 많아요. 교육정책에 대해 또래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진욱 대구 교육 관련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며 어떤 연결지점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원 무거운 주제였을 수도 있는데 참여하는 모습이나 정책 제안할 때 많은 의견이 나와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정책이 반영될 수도 있으니 많은 제안과 활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_뒷담회에 나온 이야기를 키워드로 만나는 시간



_대구교육감 정책 평가 중인 참가자들

8. 일곱 번째 기획프로그램

우리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뒷담회' VI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만들기

올해 진행하기로 한 마지막 뒷담회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뒷담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배경과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포함하여 직접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만든 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이후 진행할 인권캠페인에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교육청에 정책제안을 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만든 정책내용은 총 10가지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모임일시 : 2017년 9월 16일(토) 오후 2시

모임장소 : 반딧불이 강당

*참가자 일부는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_정책 만들고 있는 뒷담회 참가 청소년

| 청소년이 만든 열가지 교육정책 1

_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회 참가 의무화

□ 제안 배경

학교에서 학생회를 매년 뽑지만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없음. 학생회를 바라보는 선생님, 학부모의 시선도 어린 학생들로만 보는 경우가 많음. 동등한 구성원으로 서로 의견을 낼 수 있고 필요시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져야 함.

□ 세부 정책

-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회 참가 의무화

| 청소년이 만든 열가지 교육정책 2

_학급회의를 통한 학교 운영 의사반영

□ 제안 배경

학생회는 학생을 대표하는 모임이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모으는 역할을 하지 못함.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더 나은 학교가 될 수 있었으면 함. 유명무실 해지는 학급회의를 강화하여 학교를 다니며 생기는 불편한 것,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아 교장 혹은 담당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에 의사반영 하는 것이 필요함.

□ 세부 정책

- 월 1회 정기 학급회의 개최
- 학교에 대한 불편한 점, 해결방안 등 제안
- 교장 및 담당교사를 통한 의견 수렴 및 반영

| 청소년이 만든 열가지 교육정책 3

학교 시설의 학생 관리시스템

□ 제안 배경

학교 내 다양한 시설이 있지만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기 쉽지 않음. (ex.과학실, 컴퓨터실, 체육관 등) 동아리 활동 등 상황에 맞게 필요한 시설 사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학교 시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면 함.

□ 세부 정책

-시설 학생 관리시스템 : 학생회에서 학교 시설 이용대장 관리. 시간별로 학생들에게 시설이용 예약을 받음. 주기적 시설 점검을 하며 담당 교사를 최소 한명 배정함. 관리 학생에게는 봉사활동시간 제공.

□ 참고 정책 혹은 정보

대구교육권리헌장 제 1장 19조 : 복지에 관한 권리

| 청소년이 만든 열가지 교육정책 4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외출 신고제

□ 제안 배경

이름만 자율이고 교육청 정책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하지만 많은 학교에서 강제로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선택하게 한다. 담당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닌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외출을 하게 될 경우에도 허락을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였으면 한다.

□ 세부 정책

-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외출 신고제

| 청소년이 만든 열가지 교육정책 5 학교 조퇴 신고제도 마련

□ 제안 배경

아픈 것이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보았을 때 아프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로 조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선생님의 경우 의사가 아닌 선생님이지만 학생의 아픈 상태를 판단하여 조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강상 문제로 수업을 못 듣는 것은 학생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학생이 직접 자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조퇴 혹은 휴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 정책

- 선택적 수업의 조퇴 신고제 운영(방과후 학교, 보충수업)
- 학교측에서 진단서 요구시 진단서 비용 지원

□ 참고 정책 혹은 정보

- 대구교육권리헌장 제 1장 18조 /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 6조

| 청소년이 만든 열가지 교육정책 6 학교구성원 인권교육 의무화

□ 제안 배경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인권침해와 차별문제는 오랫동안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전반적인 인권감수성 교육을 통해 교육적으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한다.

□ 세부 정책

- 인권교육 교사, 학생 양성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최소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ex. 연 2회, 각 2시간)
- 교육시 최대 수강인원 제한(1회 최대 40명)

| 청소년이 만든 열가지 교육정책 7 학교 진학 선택의 자유 보장

□ 제안 배경

일반계고, 특목고, 특성화고, 공고, 상업고 등 학교를 바꾸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진로'에 대한 생각은 학교나 계열이 정해진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해간다. 성적위주의 학교 계열을 수정하고 진로, 적성 중심의 학교 편성과 진학을 보장해야 한다.

□ 세부 정책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 전 학교별 커리큘럼, 교육내용 안내 의무화
- 고등학교 입학 후 계열 선택 전 관련 진로, 교육내용 등 안내 의무화
- 타 계열 활동 참여 개방. ex)예체능, 직업교육 중점 활동에 일반 계열 학생 참여 보장
- 학교나 계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상담소 개설
- 모집 정원 제한 폐지

| 청소년이 만든 열가지 교육정책 8 _대구교육권리헌장 조례화

□ 제안 배경

학교 구성원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인 대구교육권리헌장은 교육현장에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아있다. 모든 학교 구성원의 인권이 보장될 때 학교는 좀 더 인권친화적인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이다. 대구교육권리헌장이 더 이름을 알리고 인권보장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져야 한다.

□ 세부 정책

- 대구교육권리헌장의 조례화
- 조례화 과정에서 교육 구성원 및 시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 대구교육권리헌장에 대한 교육구성원 설문조사

| 청소년이 만든 열가지 교육정책 9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확대

▣ 제안 배경

언어적 폭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여부를 알기 어렵다. 특히 교사나 학생의 관계특성상 학생이 교사의 언행에 기분이 상했어도 그 사실여부나 사과를 당사자인 교사에게 요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구조에서 교사는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구사하고 학생들은 정신적 심리적인 피해를 받는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줄 교육이나 개선방안이 담긴 정책이 필요하다.

▣ 세부 정책

- 학교폭력 피해 신고센터와 같은 번호(ex.117)에 교사, 학교 측을 대상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만든다. 제대로 된 수사를 보장하고 익명성을 보장한다.
- 학교폭력 피해 신고센터 홍보 확대
-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청소년이 만든 열가지 교육정책 10
_입학 지원서 작성 시 학생 최종 승인제

▣ 제안 배경

입학지원서 작성 시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영향으로 본인이 정말 원하는 학교(학과)에 지원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세부 정책

- 입학지원서 작성 시 학생 최종 승인제도 마련

9. 마지막 기획프로그램

참여형 인권캠페인 청소년인권광장 S.A.M Saturday Afternoon Meeting

올해 마지막 기획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인권캠페인은 청소년이 만든 열가지 교육정책설문, 대구교육감정책평가, 정책제안트리(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적는)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교육정책설문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스티커를 붙이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대구교육감정책평가는 뒷담회에서 했던 방식대로 정책항목을 보고 시민들이 스티커로 평점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일시 : 2017년 9월 16일(토) 오후 2시

장소 : 대구 동성로 한일CGV앞 광장



| 참여프로그램_ 청소년이 직접 만든 정책제안 설문



| 정책제안 설문 결과

	제안정책	득표수
1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외출 신고제	138
2	학교 진학 선택의 자유 보장	78
3	학교 조퇴 신고제도 마련	75
4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확대	70
5	입학 지원서 작성 시 학생 최종 승인제	63
6	학급회의를 통한 학교 운영 의사반영	54
7	학교구성원 인권교육 의무화	48
8	학교 시설의 학생 관리시스템	47
9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회 참가 의무화	22
10	대구교육권리헌장 조례화	7

| 참여프로그램_대구교육감 정책 평가



과제 1.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시스템 구축

세부과제	평점 (5점만점)
1-1.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	2.4
1-3.행복한 학교문화를 통한 폭력제로학교 만들기	2.6
1-4.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시설개선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노후 시설점검, 냉난방 시설 개선, 식수 관리)	2.6

과제 2. 바른 품성과 행복역량을 갖춘 인재육성

세부과제	평점 (5점만점)
2-2.학생·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배움과 가르침이 즐거운 협력학습 정착	2.2
2-4.2015학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조기시행	2.5
2-5.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으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진로맞춤형 프로그램, 학생주도 동아리활동, 학교 간 진로변경)	2.5

과제 4. 지역간·계층간 교육서비스의 상향평준화 정책 추진

세부과제	평점 (5점만점)
4-3.학교 내 예술교육활성화로 예술분야 공교육 역할강화 (1인 1악기 연주, 예술교사 역량 강화, 학생 예술동아리 활성화)	2.3
4-4.예체능 진로 집중과정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2.2
4-5.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로 진로교육 강화 (고3대상 직업과정 위탁 교육 인원 확대, 일반고 1,2학년 방과후 직업교육)	2.0

| 참여프로그램_청소년 정책 제안 트리



| 정책 제안 트리 접수 의견

<여학생 교복>

- 이거 제발 여학생교복 하복 셔츠의 기능성, 통풍성 모두 이상해요. 개선을..
- 교복셔츠, 사이즈 늘려주세요
- 여학생 하복상의=유아복
- 여학생 하복셔츠가 어린이 옷과 사이즈가 맞먹는데요
- 옷을 입으면 가슴이 커보인다고 뭐라하고 옷을 입지 않으면 벌점 혹은 처벌
- 교복 좀 제발 편하게. 두발, 화장도 자유면 좋겠어
- 여학생 교복 너무 작아요. 사이즈 늘려주세요!!
- 여학생 교복 너무 작고 불편해서 질식사 할 것 같습니다.
- 여학생들의 와이셔츠가 남학생들과 다르다

<교육환경>

- 추위 죽겠는데 담요 뺏기
- 교실이 춥거나 더움
- 추운데 겉옷 못 입게 해요. 추워요

<진로, 진학>

- 고등학교 입시정보를 많이 알려주면 좋겠어요.
- 중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으로 방과 후를 늘려 달라.
- 진학 할 때 학생의견을 학부모의견보다 큰 비중을 뒀으면.

<급식>

- 석식 맛있게.(영X여고)
- 급식양이 적음
- 급식이 맛있고 양이 적음!(서X중)
- 급식이 덜 익어서 나오고 같은 돈 주는 다른 학교보다 급이 낮은 급식을 먹고 있음 (노X중)

<기타>

- 맨투맨 허용, 등급별 수업X
- 자유학기제 과목 종류 늘려주세요
-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더 가혹하게 해 주었으면
- 자유학기제 의미 없다
- 학교폭력 없으면서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ex)자유두발등
- 학습에 열의가 없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들이 교육을 귀찮아 하신다.
ex)000선생님:난 대학나와서 너희들 안가르쳐도 상관없다 등
- 기술,가정 과목 무쓸모

10. 활동을 마무리하며

| 지금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거리에 나와 부당한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겨울 뿐만 아니라 2002년 미군장갑차 압사사건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문제가 될 때 늘 앞장서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사회 문제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두발자유(노컷운동)를 외치거나 신체의 자유를 위해 1인 시위도 해왔습니다. 수많은 노력을 통해 청소년 인권은 과거에 비해 한 걸음 나아갔지만 여전히 상황은 열악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기본인 투표조차 하지 못하며 그 어떤 정치적 활동도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도 학생들이 투표하지 못합니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자는 말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발언기회가 주어지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는 민주주의 사회에 아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자신의 신체에 어떠한 폭력도 일어나서는 안 되며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 안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는 늘 한걸음 뒤로 밀려납니다. 청소년은 아직 어리니까, 지금은 공부만 하면 되니까, 미성숙한 존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좀 더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일지 청소년의 목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 최근 촛불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한 전국 청소년 및 단체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은 세가지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여 선거연령 및 피선거권연령을 인하하고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입니다. 두 번째는 아동청소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요구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지난 겨울 청소년들이 들었던 촛불을 통해 수많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조기대선에서 청소년 6만여명이 모의투표를 통해 대통령 선거를 간접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간접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닌 실제 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삶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찾아왔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가 청소년이 참가하는 첫 번째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의 활동을 담은 자료집을 갈무리하며 청소년인권기획단으로 활동하는 한 청소년의 글을 공유합니다. 학교 국어시간 발표를 위해 작성한 이 글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삶이 보다 인권적이고 민주적일 수 있도록 청소년인권기획단의 활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 청소년인권기획단이 말하는 청소년 인권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에서 청소년 인권기획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청소년 인권과 청소년 혐오'입니다. 이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2년간 청소년 인권에 대해 배우고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조차 청소년이 나이로 인해 겪는 부당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제를 통해 여러분들께 일상 속에 녹아 있는 차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청소년 인권이란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다른 비청소년들과 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청소년 인권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텐데요, 청소년 혐오라는 말은 아마 많이 생소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혐오란 청소년을 비하, 경멸하는 문화입니다. 비하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더라도 경멸이나 혐오란 단어가 너무 느낌이 강해서 거리가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식충이란 단어를 생각해보십시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급식이라는 단어와 벌레등을 뜻하는 충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학교에 급식이나 먹으러 다니는 벌레들이라는 의미인데 SNS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런 단어에서도 충분히 청소년들을 경멸하고 비하하는 어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 한번이라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 혐오등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 있나요? 이런 사례도 청소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 혐오와 인권침해에 대한 예는 청소년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참정권이란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국가에서는 청소년들을 아직 미성숙하다고 일반화하고 틀에 가둬놓으며 청소년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청소년 혐오 발언과 인권 침해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체벌은 청소년들이 그들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에 덧붙이자면 체벌을 하시는 몇몇 선생님들은 "말로는 안되는 새끼들이 있다. 그런 놈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내가 때려서 사람 만든 놈들 많다. 그런 애들은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자신의 체벌을 정당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벌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이렇게 때려서라도 공부를 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교육을 강요하며 개성을 무시하고 표준화시키려는 문화조차 청소년들의 자유를 억압

하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학생들의 물품을 동의 없이 압수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밖에도 학교에서의 인권침해는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교칙을 정하는 것, 화장과 악세사리 등을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이런 사례들은 많은데요, 어린것들이 뭘 아냐는 말. 들을 때 마다 정말 기분 나쁜 말입니다. 또 청소년들을 비하하는 신조어인 중2병, 급식충 등도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미성숙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단어이므로 청소년 혐오 발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큰 화제였던 촛불 집회에서도 청소년 혐오 발언이 빈번하게 나왔습니다. 바로 '공부나 하지 왜 이런데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청소년은 무조건 공부만 한다는 편견을 다분히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상반되는 말로 "어린데 기특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이 칭찬이라고만 느껴지시나요? 제가 촛불집회에 나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인데요,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칭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특하다는 말은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몇 년 더 살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 머리속에서 저는 이미 그 사람보다 낮고 약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어리다는 말을 붙인 것은 어리면 이런걸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청소년들을 모두 미성숙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일반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미래의 주인이라고 하며 지금 당하는 차별과 혐오는 당연히 견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도 '미래의 주인'이 아닌 '비청소년들과 같이 현재를 살아가는 엄연한 하나의 인격체'로써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청소년들 스스로가 청소년을 비하하는 단어인 '급식충'과 같은 말을 지양해야 하고 평소에도 이런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구교육감 정책평가 세부내용

대구교육감 공약평가 결과

대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우동기교육감의 공약과제입니다. 5가지 과제와 42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일부 과제를 선정하여 학교생활을 통해 얼마나 반영된다고 생각하는지 평가해보았습니다.

과제 1.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시스템 구축

세부과제	평점 5점 만점	이유
1-1.건강한 성장을 위한 <u>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u> 제공	3.1	(1) 급식의 맛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사고 혹은 위생적으로 문제가 된 일은 아직까지 없었다. (해당학교에서) (2) 학교마다 다르지만 급식의 질이나 위생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견되고, 이슈화 된적이 여러번이었다. (3)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실이 아닌 교실에서 밥을 먹기 때문이다.
1-3.행복한 <u>학교문화를 통한 폭력</u> 제로학교 만들기	1.3	(1) 폭력제로학교 만들기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어디서든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 무의미한 것 같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폭력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다. (2) 학교폭력교육의 불필요성. 학생들에게 크게 와닿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하는 교육. 보여주기식. (3) 근본적으로 학교가 '학교폭력' 이 발생했을시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달라 말했지만 선

			생님이 그게 너에게 도움 될지 생각해보라며 하지 말라고 했다. (4) 사람이 살면서 평생 안싸울 수 없다. 잘 싸우고 잘 화해하는 방법이 앞으로 인생에 필요한데 싸우는 것을 아예 방지하며 서로 잠재적인 폭력성만 키운다.
1-4. <u>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 및 관리</u> 시스템 구축	1-4-1. 노후시설 정밀점검 및 조치	2.1	(1) 우레탄 운동장과 석고천장 방치, 공사 지연. (2) 청소관리는 일주 하는 것 같으나 노후된 시설 (화장실 문 혹은 선풍기, 난방기, 부서진 천장, 금이 간 창문 등등)을 학교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개선하지 않는다. 안전문제에 무감한 것 같다.
	1-4-3. 노후 냉.난방 시설개선	2.8	(3) 학교에 가면 교도소 느낌이 난다. 4층에서 수도가 터져 물난리가 난적도 있고 작년 지진 후 보수 없이 천장에 금 간 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4-6. 안전한 식수시설 관리	3.1	

과제 2. 바른 품성과 행복역량을 갖춘 인재육성

세부과제	평점 5점 만점	이유
2-2.학생·교사의 <u>자발적 참여를 통한 배움과 가르침이 즐거운 협력학습</u> 정착	1.7	(1) 학생 개개인의 실력차이, 혹은 비자발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라고 보는 것은 힘들다. (2)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강

		<p>압적인 분위기 또는 요구로 발표도, 수업 방식도 비자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뿐인 정책. 제대로 시행된 케이스를 거의 본 적 없다.</p>
<p>2-4.2015학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조기시행</p>	1.1	<p>(1) 자유학기제의 제도상 시험에 대한 긴장감이 풀린다. 그 결과, 2학년 때 성적이 떨어진다.</p> <p>(2)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프로그램이라 하지만 직업프로그램의 폭이 너무 좁고 그 직업에 대해 자세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뿐더러, 외부활동보다 내부활동(학교내에서 진행하는)의 비율이 확연히 높다. 직업을 체험하려면 당연히 밖으로 나가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이 소극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그리 효과적이지 않은 제도라는 생각.</p> <p>(3) 직업진로를 탐색하는 학기보다는 학교가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노는 학기라는 이미지가 강하다.</p> <p>(4) 입시제도가 안바뀌면 결국 소용없는 제도다. 모의고사나 수업진도가 못따라가고 사교육비만 증가한다.</p>
<p>2-5.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으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p>	<p>2-5-1. 진로맞춤 형 특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p>	3.1 <p>(1) 해당 직업을 가진 사람이 와서 그 직업을 직접 설명해주는 방식은 좋았다.</p> <p>(2) 프로그램 알림방식이 안내지인 관계로 학생들이 잘 읽어보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많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다.</p> <p>(3) 한달 1~2회 직업체험한다. 하지만 학생의 의견 수렴보다 학교에서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만 부른다.</p>

	2-5-3. 학생주도 동아리 활동 활성화	2.2 <p>(1) 동아리를 개설해서 그 동아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해도 예산문제로 무시하는 경우가 대다수.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동아리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많은 간섭이 있다.</p> <p>(2) 동아리 활동으로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시키려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활동은커녕 자습을 하거나 보충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p> <p>(3)선생님의 허락이 있어야 결국 자율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 선생님께 아부를 떨어야 하고 생기부를 잘써주는 선생님은 경쟁률이 높다. 자율동아리 모임시간 보장도 안된다. 점심시간에 10분만에 밥을 먹고 모여야 한다. 그래놓고 학교 행사에는 동원되어야 한다.</p>
	2-5-5. 일반고, 특성화고 간 진로 변경기회 확대	1.7 <p>(1)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가려면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동기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의문.</p> <p>(2) 현재 과학중점고 다니는 친구가 특성화고를 가고 싶었지만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다.</p>

과제 4. 지역간·계층간 교육서비스의 상향 평준화 정책 추진

세부과제		평점 5점 만점	이유
4-3. 학교 내 예술교육 활성화로 예술분야 공교육 역할강화	4-3-1. 1인 1악기 연주능력 배양	1.2	(1) 능력개발이 아닌 수행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똑같은 노래, 악기를 다룬다. 전문적으로 배운다는 느낌이 안든다. (3년 동안 리코더만 불고 있다..) (2) 예술동아리 (합주부, 합창부 등등) 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크게 밀어주지 않는다. 혹은, 특정 동아리만 밀어준다.
	4-3-2. 예술교사 지도역량 강화	2.3	
	4-3-3. 학생예술 동아리 활성화	2.3	
4-4. 예체능 진로 집중과정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수요충족		1.2	(1) 예체는 진로 집중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다. 제대로 시행되고 있기는 한건지.
4-5.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로 진로교육 강화	4-5-1. 일반고3 대상 직업과정 위탁교육 인원확대	2.4	(1) 직업교육 방과후 프로그램이 1학기에만 있어서 안타까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 (2) 대구에 있는 예담학교가 내년부터 기숙형으로 전국에서 공모한다고 한다. 대구 지역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것이다.
	4-5-2. 일반고 1,2학년 직업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2.1	



| 사단법인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전화.053.421.1318

팩스.053.421.1322

홈페이지 www.bandit1318.org

페이스북 facebook.com/1318bandi

반딧불이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청소년의 삶이 더욱 빛나도록 반딧불이에 힘이 되어 주세요.

후원문의 : 053.421.1318 / 010.3846.4169 (이가영)

후원계좌 : 대구은행 068-10-000496